

HOME (/) > BOOK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 > 새로운 책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4)

중국 근현대사의 지식인

👤 김재호 | ⌚ 승인 2022.01.07 12:36

중국 지식인을 둘러싼 세계와 지속되는 관념의 변화
티모시 치크 지음, 최은진 옮김 | 540쪽 | 학고방

[

**중국 근현대사의 지식인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는 학술서이자
중국 지식인을 둘러싼 세계와 지속되는 관념의 변화를 흥미롭게 펼쳐보
인 역사적 에세이**

|

중국 지식인들과 공적 삶에 대한 이 생생한 구술사는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게 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티모시 치크는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래 “번영하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20세기 동안의 지식인들을 이해하는 지도와 방법을 제공한다.



치크는 중국사의 이 전환하는 세기에 걸쳐 변화하는 지적 생활의 지형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정 인물, 사상, 논쟁을 제공한다. 지도는 다른 시대, 다른 사회적 세계 그리고 핵심 개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좌표를 제공한다. 역사적 방법은 여섯 시기 동안 세기를 가로지르는 개인 사상가들, 제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과 공동체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들은 모두 현대 중국의 공적 생활과 지식인들의 기억할만한 관념과 논쟁, 주인공과 장면을 제공한다.

근현대 중국 지식인의 역사는 사려 깊고 헌신적이며 야심에 차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불평불만이 많고 주눅이 든, 지극히 인간적인 지식인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전망을 제공한다. 우리는 세상과 문제들이 서로 다른 시간과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순간에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강조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지식인이 기능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세계를 염두에 두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세 개(대도시, 지방(성省), 향촌 지역)로 시작해 끝에 가서는 정부 봉사, 학계, 상업 세계, 협회, 외국어를 사용하는 세계, 그리고 반대자의 세계인 6개 세계로 확장하였다.

우리는 내내 공적 생활에서 몇 가지 핵심적 관념—즉 인민, 중국(인)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해왔다. 각각의 이데올로기적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중국 정치 생활의 세 가지 핵심적인 관념이 지속되면서도 시대마다 상당히 다른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국 중국 사상가와 작가들이 그들의 기술, 사회적 자본 및 삶의 기회를 중국에 봉사—물론 각자가 옳다고 믿는 대로—하는 인내와 헌신에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세기가 넘는 대학살은 끔찍했지만 그 회복력은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공헌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큰 약속을 담고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